

『율리시스』에 나타난 도시 미학: 「하데스」와 「떠도는 바위들」을 중심으로

남 기 현

I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혹은 한 명의 작가를 통해서 정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를 배제한 모더니즘의 정의는 더욱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모더니즘의 지형도에서 조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이스의 이해를 통해서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귀납적인 방법이 훨씬 접근 하기가 용이해 보인다. 기존의 비평 조류는 조이스를 통해 모더니즘을 이해하고자 할 때 도시적인 삶을 미학적인 근거로 파악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의 탈역사적인 성향을 주로 거론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더블린이라는 도시 공간이 시간성을 초월한 영역일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조이스의 미학 자체가 더블린이라는 도시 공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더블린이 드러내는 분열적 증상 또한 모더니즘적 양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모더니즘 문학을 정의할 때 거대도시(cosmopolitan city)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학적 모더니즘은 도시의 예술이라 불려왔다. 이는 도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의미하며 도시가 자연적 서식지이고 모더니즘 작품들은 주로 도시와 인간의식에 끼친 도시의 영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Spurr 28). 이런 의미에서 도시로의 중심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미학적 인식의 중심이동을 수반한다. 즉, 도시가 문학의 소재이며 동시에 표현양식이라는 점에서 모더니즘 작가에게서 도시적인 삶은 미학적 근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화는 모더니즘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와 동시에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초국가적인 국제화도 모더니즘과 동일시되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도시화와 국제화는 필연적으로 탈이념적이며 탈역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이 마치 코즈모폴리타니즘을 지향하는 문학사조로 인식되면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탈역사적 문예사조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조이스의 문학도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더니즘의 도시화와 국제화의 현상 속에서만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하지만 도시 공간은 시간성을 초월한 영역일 수는 없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공간과 권력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전체 역사는 공간에 관해 씌어지게 된다.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 . . —지정학적 거대 전략으로부터 서식지의 세부 전술까지” (149). 공간의 역사는 곧 권력의 역사라는 점에서 조이스의 더블린은 단순히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성을 내포한 공간이다. 따라서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지정학적 거대 전략”(the great strategies of geo-politics)과 “서식지의 세부 전술”(the little tactics of the habitat)을 살펴봄으로써 조이스에게 있어서 더블린이라는 도시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도시라는 공간이 내포한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 거대 전략의 측면에서는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서식지의 세부 전술의 측면에서는 정치적 이념의 틀에서 벗어난 군소 시민들의 실리적 삶의 결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이스가 포착한 더블린의 모습은 도시라는 공간의 역사가 곧 권력의 역사임을 드러내 보인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차원에서 영토의 문제와 관련되고 따라서 민족주의 이념의 문제와도 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 “영토”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더블린이 식민지의 일부라는 사실은 그것을 단순히 국제적인 도시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된다.

조이스의 문학은 대부분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에 있어서 더블린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일랜드를 떠나서 유럽에서 망명생활을 했지만, 조이스에게 있어서 더블린은 그의 야심에 찬 말속에 숨겨져 있듯이, 문학의 소재이며,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나는 어느 날 더블린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책으로부터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도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싶다” (Budgen 69). 조이스가 그리는 더블린은 영국 제국의 제 2 도시로 불리는 것에 비해 그 위상이 초라한 모순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모호한 조건은 더블린을 유럽의 다른 도시들처럼 거대 도시의 전형으로 볼 수 없게 만들며, 따라서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율리시스』가 몰리 블룸(Molly Bloom)의 긍정의 단어 Yes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Yes 뒤에 두 행이 더 있는데, 그 마지막 두 행은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창작했던 시기에 살았던 도시들의 이름과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Trieste-Zurich-Paris / 1914-1921” (U 18.1610-11). 이는 장소가 갖는 역사성을 조이스가 염두에 두었다는 흔적인 동시에 『율리시스』가 더블린에 관한 기록이지만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함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율리시스』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1904년의 더블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914년부터 1921년 사이의 유럽”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조이스에게 더블린은 유럽의 도시들과의 비교 속에서 존재한다. 헤이워드 얼리흐(Heyward Ehrlich)의 지적처럼, 네 도시들은 각각 모더니즘의 일면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더블린은 신낭만주의적인 아일랜드 문예부흥을, 트리에스티(와 밀라노 근방)은 미래주의를, 쾰리히는 다다이즘을, 파리는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언어실험 등을 [대변한다.]” (4). 세 도시를 통해서 유럽의 지배적인 모더니즘의 경향을 담아내면서도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적 전통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한 더블린도 그의 문학의 미학적 기반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이스는 조국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통치에 신음하는 역사적 질곡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트리에스티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더욱 강하게 인식했다. 트리에스티는 원래 이탈리아의 영토였지만, 당시에는 헝가리-오스트리아제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조이스가 살던 시기에 분리운동이 한창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도시명이 표시된 점으로부터 조이스가 더블린을 떠나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경험한 것이

『율리시스』에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더블린이 낙후된 지방(the local)이며, 범세계적인 도시라는 모순적인 조건을 안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세이머스 딘(Seamus Deane)은 조이스에게 있어서 더블린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조이스는 [더블린 시의] 지방주의와 그 가면들을 벗기길 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도시를 현대 도시의 원형으로, 즉 모든 인간의 역사가 재현되는 하나의 장소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42). 이 지적은 더블린이 유럽의 다른 도시와 대등한 전형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블린이 아일랜드의 수도이며, 영국제국의 제 2의 거대도시이기도 하지만, 더블린은 여전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식민지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모더니즘의 이해가 단순히 세계주의에 근거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도시 문화의 흐름에 대한 저항과 순응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조이스에게 있어서 더블린은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예술적 원천이며, 그의 미학 자체도 더블린이라는 도시 공간의 특성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더블린이 담아내는 분열증적 양상—이는 모더니즘의 양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의 도시적 미학의 근간을 이룬다.

위에 언급했던 딘의 지적에서도 더블린이라는 공간은 모든 역사가 실현되는 곳이다. 지방주의(provincialism)와 세계주의(cosmopolitanism) 사이의 긴장은 초기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경기가 끝난 후」(“After the Race”)에서 주인공 지미 도일(Jimmy Doyle)은 아버지의 정치적 변절로 축적된 부를 통해서 영국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거기서 프랑스인 세구앵(Seguoin)을 만남으로써 유럽의 문명과 경제적 풍요를 경험한다. 특히 고든 베넷 컵(Gordon Bennett Cup) 자동차 경주는 유럽의 기술과 경제력을 상징하며, 이러한 화려함에 경의를 표하는 더블린 시민들은 낙후된 경제력에 놓여 있는 상태임을 드러낸다. 당시에 더블린의 중요한 교통수단은 여전히 마차 또는 전차였으며, 자동차 경주에 참여한 자동차들로 붐비는 더블린 시가지는 평소와는 다른 교통체증을 경험한다. 하지만 유럽에 대한 동경은 거대도시의 도회성(urbanity)이 성적 타락이나 부도덕함과 직결된다는 두려움이 된다(Cheng 24). 「작은 구름」(“A Little Cloud”)에서 챠들러(Chandler)와 갤러허(Gallaher)를 통해 더블린과 런던/파리로 대변되는 유럽 문화의 대치점을 보여준다. 갤러허가 경험한 파리의 무량루즈는 대표적인 성적 타락의 장소이며, 런던도 마찬가지로 말 속에 거대 도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퇴폐적 요소가 드러난다. 챠들러가 더블린을 벗어나

런던에서 시인으로서의 성공을 추구하려 하지만, 갤러허의 모습에서 유럽문명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과 환멸은 쉐들러의 마음속에 동시에 작용하며, 갤러허가 언급한 부유한 유대인 여성에 대한 갈망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프로테우스」(“Proteus”)장에는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의 파리에 서의 경험이 잘 나타나있다. 의학공부를 위해 파리로 떠났던 스티븐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더블린으로 돌아온다. 그에게 남겨진 파리의 이미지는 세기의 전환기의 유럽문명의 타락과 그 속에서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힌 인물을 통해 모더니즘의 과도기적 일면을 드러내 보인다. 스티븐의 파리생활이 남긴 것은 그의 페티시즘일 뿐이다. “너는 풍부한 전리품을 갖고 왔지; *Le Tutu*, 너 털털한 *Pantalon Blanc et Culotte Rouge* 잡지 5권”(U 3.196-97). 스티븐이 파리에서 가져 온 전리품이라는 것이 고작 타락한 파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여성의 속옷에 관한 잡지일 뿐이다. 또한 스티븐이 파리에서 만난 케빈 이건(Kevin Egan)은 리머릭 조약 이후 아일랜드를 떠난 정치적 망명자들인 “기러기 떼”(wild geese)의 후예이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는 상실된 채 그는 잊혀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은 케빈 이건을 잊었다. 그는 그들을 잊지 않았는데. 그대를 기억하노라, 오 시온이여”(U 3.263-64). 여기서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망명자들의 운명을 시온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과 비유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민족적 경험을 유럽의 민족주의의 갈등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율리시스』의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이 헝가리게 유대인이라는 점은 유럽문화의 핵심인 유대-기독교 문화를 아우르는 인물을 통해 인종과 민족의 문제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한 모더니즘 문학의 탈정치성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모더니즘 문학은 더 이상 비정치적, 비역사적 담론이 아니며, 오히려 통합과 이탈의 분열 상태를 반영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분열적 현상은 조이스의 분신이라고 여겨지는 가브리엘에게서 잘 나타난다.

「죽은 사람들」에서는 아일랜드의 서해안에 자리 잡은 애란섬(the Aran Islands)이 가브리엘이 자전적 여행을 가고자 하는 유럽과 대비되어 있다. 사실상 조이스가 포착한 아일랜드의 현실은 바로 그 두 점의 사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아이보스 양(Miss Ivors)이 권하는 서부로의 여행은 아일랜드의 기원인 게일어의 부활이 곧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활로 여겨지던 당시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압박을 보여준다. 비록 가브리엘이 조이스 자신과 흡사한

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장이나 생각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더구나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레오폴드 블룸은 조이스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이라는 점에서 블룸이 보여주는 “서식지의 세부 전략”은 보완적이다. 조이스는 자신의 독특한 주제적 위상인 “소수자 도시인”(Valente 64)으로서의 전략과 전술을 통해 도시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III

『율리시스』에서 공간과 권력의 문제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장은 「하데스」(“Hades”)와 「떠도는 바위들」(“Wandering Rocks”)이다. 「하데스」장에서는 패디 디그넘(Paddy Dignam)의 장례 행렬이 더블린 시내를 관통하여 글래스네빈(Glasnevin) 묘지로 가는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을 암시하는 건축물이나 동상이 언급되고, 「떠도는 바위들」에서는 스티븐 데덜러스가 “두 주인”(two masters)이라고 부르는 교회(Church)와 정부(State)를 대표하는 두 인물인 콘미 신부와 총독의 자선 행렬이 중심이 되어 있어 더블린 시내의 역사적 장소들이 언급된다. 그러나 두 인물이 표상하는 두 개의 권력은 균등하지는 않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Gibson 84). 왕권을 대변하는 총독의 권력이 거대 담론의 층위라면 콘미 신부가 가톨릭의 권력을 대변하긴 하지만 개인적 층위에서 자선을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같은 시간에 더블린이라는 공간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공시적 개념의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19세기는 단선적인 연속성의 시간 개념이었다면, 모더니즘은 피카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파편들의 배치를 통한 공시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총독의 행렬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다.

더블린이 영국 식민지의 일부임은 『율리시스』의 첫 장에서도 두드러진다. 『율리시스』의 시작을 마텔로 탑(Martello Tower)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공간의 지정학적 거대 전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나폴레옹과의 전쟁 중에 프랑스 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해안가에 건설된 요새로서,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사실상 또 다른 식민국가인 프랑스 세력을 끌어 들이려는 역사적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의 영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Black 25).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세 명의 청년들 —스티븐(Stephen), 멀리간(Mulligan), 그리고 헤인즈(Haines)—은 아일랜드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국인 헤인즈, 그에게 협조적인 아일랜드인인 멀리간, 그리고 적개심을 안고 있는 스티븐의 관계는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을 압축시켜 보여주고 있다. 침탈(usurpation)의 주제를 통해서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특히 헤인즈의 검은 표범에 관한 악몽은 영국의 인도의 식민 지배를 암시해주고 있어서 아일랜드를 인도와 같은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임을 확실히 드러낸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인 헤인즈가 오히려 아일랜드의 문화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시각은 일종의 관광객의 관점일 뿐이다.

「하데스」에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 지배를 암시하는 건축물이 곳곳에 등장한다. 블룸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언급되는 장소들은 장례 행렬의 지리적인 기표로 작용하면서도 일부는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 통치를 암시해주는 것들이 부지기수이다. 크롬웰의 통치 이후 아일랜드를 지배해 온 계층인 신교도들의 동상은 대표적인 예이다: “필립 크램튼 경의 추모 분수 흉상. 그가 누구였지?” (U 6.191). 필립 크램튼 경은 수년 동안 보건장관으로 일했던 의사로서 블룸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반면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였던 파넬의 동상은 기단만이 마련되었을 뿐이라는 상황은 대조적이다: “파넬 동상을 위한 초석” (U 6.320). 이 초석은 1899년 10월 8일에 세워졌지만 동상은 1911년에나 완성되었다(Gifford 111).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교도 상류층의 의사의 동상은 그의 미가 퇴색된 채 존재하지만,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파넬의 동상은 초석만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물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벨슨 동상이다(U 6.293). 「아이올루스」(“Aeolus”)장에서 더블린 여자들이 벨슨 제독의 동상에 올라가서 씨앗을 벨는 장면은 강력한 패러디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벨슨 제독은 영국 해상 권력의 상징이며,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있던 동상과 같은 동상이 더블린 중심가에 남성적 상징처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량 두 대에 가득한 관광객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여자들은 앞 쪽에 앉고, 손잡이를 꼭 붙든 채. 창백한 얼굴들. 남자들의 팔은 왜소한 몸을 솔직하게 감싸

고 있고. 그들은 트리니티 대학에서 창문이 막힌 주랑이 있는 아일랜드 은행의 현관을 바라보았다. (U 10.340-43).

창백한 얼굴의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스티븐은 마치 원주민들이 식민 지배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다. 긴장한 모습의 관광객들은 낮선 곳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손잡이를 꼭 잡는 모습에서 드러낸다. 그들이 바라보는 두 개의 건물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창문이 막힌”(blind)이라는 어구는 1800년 합방 이전까지 아일랜드 의회로 쓰이던 건물이 은행으로 전환한 후에 보안을 위해서 창문을 막았기 때문에 부르는 표현이지만 관광객들의 무지(blindness)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Duffy 1994, 52). 이름은 아일랜드 은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 은행의 지점이었고, 일종의 식민지 지배를 통한 경제적 수탈을 위한 기관이었을 뿐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좌절된 독립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파넬이 이끄는 의회파 민족주의 운동이 목표로 했던 자치 정책의 좌절을 암시하듯이 예전에 국회 건물이었던 곳은 창이 없는 은행이 되어 버린 것이다. 관광객들에게는 건물의 역사가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저 건축물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맞은편에 위치한 트리니티 대학은 신교도를 위한 대학이었으며, 지배계층을 양산하는 이념적 국가장치이기도 하였다.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가톨릭교도들에게는 관직으로의 진출이 차단되었고, 개종을 거부하는 한 지배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네, 그렇죠. 네드 램버트가 진심어린 말투로 말했다. 우리는 비단결 토마스가 1534년 스스로를 반도라고 주장했던 성 마리아 사원의 역사적 위원회 실에 서 있는 거죠. 이곳은 더블린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이죠. 오매든 버크는 요즘 그것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예전 은행이 합방되기 전까지 저기에 있었고 아델레이드 거리에 유대교 성전을 세우기 전에 원래의 유대인 사원도 있었죠. 한 번도 가본 적 없죠, 제, 그렇죠? (U 10.407-13)

“비단결 토마스”(Silken Thomas)라고 불리던 오페리 경(Lord Offaly)은 아버지가 살해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헨리 8세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인물이다.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이었지만, 그는 교수형에 처해서 능지처참을 당했다는 점에서 로버트 에멧(Robert Emmet)을

연상시키기는 인물이다.

저쪽 아래서 에멧이 교수형 당하고, 끌려 다니고, 능지처참 당했지. 기름진 검은 밧줄. 총독 부인이 마차를 타고 지나던 거리에서 개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었지. (U 10.763-65)

로버트 에멧의 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처형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전통에서 전투적 민족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들이 핥고 있는 거리에 응고되어 있는 핏자국처럼 아일랜드의 거리에는 역사가 엉겨 붙어 있는 것이다. 그이 묘비명은 아일랜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그 영향력이 컸다: “아일랜드가 세계의 국가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묘비명을 새기게 하라.” 하지만 실제보다 훨씬 신화적인 인물로 격상된 에멧의 존재는 「사이렌」장에서 블룸의 방귀에 의해 희화되어 버린다. 에멧의 혁명은 1800년 합방에 대한 항거였지만, 토마스 경의 저항처럼 무모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의 처형은 그를 민족독립을 위한 순교자로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1916년 부활절 봉기의 이념적 기틀을 제공한 것이다. 패트릭 피어스(Patrick Pearse)는 정치적 “순교”를 강조함으로써 평범한 교사에서 혁명적 지도자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이스의 게일어 선생이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에멧의 신격화는 블룸의 방귀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은 1798년 울프 톤의 혁명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통합을 재촉한 사건이며, 혁명의 실패 이후 전투적 민족주의는 중요한 줄기를 형성하게 된다. 앞선 언급했듯이 조이스는 작품의 시간적 축인 1904년 6월 16일 하루의 시간 속에 아일랜드의 과거 역사를 압축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쓰인 시간도 암시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로버트 스푸(Robert Spoo)는 『율리시스』에 1차 세계대전의 현존을 강조하기도 했다 (105-6). 엔다 더피(Enda Duffy)는 1916년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의 흔적을 추적하기도 했다 (2000, 124). 따라서 『율리시스』는 아일랜드 역사의 “거듭 쓴 양피지”(palimpsest)라 할 수 있다. 그것도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커넨씨는 아일랜드 거리로 다가갔다. 시련의 시대. 네드 램버트에게 조나 베링턴 경의 기념품들을 빌려 달라고 해야겠네. 일종의 회상적 배열로 모든 것을 뒤돌아 볼 때. 데일리 가게에서의 노름. 그 당시에는 카드 장난은 없었지. 손이 칼에 의해 박힌 친구가 있었지. 여기 어딘가 에드워드 핏제럴드 경이 써 경감에게서 탈출했지. 모이라 집 뒤의 마굿간. (U 10.781-86)

커넨씨는 『더블린 사람들』의 「은총」(“Grace”)에 등장하듯이, 신교도로서 그의 정치적 성향은 다리의 이름을 언급하는 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칼라일(Carlisle) 교” (U 10.747). 오코넬(O'Connell) 교의 건축이 시작되었던 1791년 당시 총독이었던 칼라일의 이름에서 따온 원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그의 정치적 성향은 친영파임을 알 수 있다. 즉, 거리나 건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도 정치적 이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블린은 탈역사적 거대도시는 아닌 것이다. 그가 기억하고 있을 만큼 1798년의 혁명은 아일랜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에드워드 핏제럴드 경(Sir Edward Fitzgerald)은 울프 톤과 더불어 1798년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로 당시 경감이었던 써 경에게 체포되었다가 탈옥함으로써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다. 써 경감이 밀고자들을 운용해서 감시의 망을 견고히 했지만, 핏제럴드 경은 탈출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컸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주둔군은 존재했지만 조이스의 작품에서는 두드러지지는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둔군의 존재는 늘 암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에블린」(“Eveline”)에서 부두에 내리는 군인들의 모습이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키-베넷 경기(Keogh-Bennet match)의 경기 포스터를 통해서 아일랜드의 민족적 감정이 드러난다.

더블린의 사랑스런 양, 마일러 키가 포토벨로의 난폭자, 특무상사 베넷과 50파운드의 상금을 걸고 맞붙을 예정이다. 이런, 정말 볼만 한 경기이지. 마일러 키, 녹색 띠를 두르고 경기에 임할 친구지. 입장료 2실링. 군인은 반값.
(U 10.1133-36)

더블린 거리 곳곳에 등장하는 권투경기 포스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을 담아내고 있다. 영국 군인과 녹색 띠를 두른 아일랜드 선수의 대결은 상존하는 정치적 갈등으로 경기의 의미가 증폭되어 있다. 12장에서 앨프(Alf)와 시민의 대화에서 나오듯이 이 경기는 키의 패배로 끝났고, 경기의 패배를 시민

은 뇌물로 인한 의도적 패배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한다: “반역자 자식. 그 녀석 호주머니에 영국 금화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지” (U 12.949-50). 이어지는 패러디 부분에서 두 사람의 권투경기는 지속적으로 “아일랜드 전사 대 영국 군인”의 대결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조이스의 도시 미학의 전략과 전술은 바로 일상성속에서 발견되는 거대담론의 실체이다. 정치적 선전처럼 노골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잠재의식을 파고든 정치적 이념은 그 파괴력이 크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권투경기는 남성성과 연결되고, 다시 폭력의 정당화로 이어져 식민통치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거대담론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관계를 교묘히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블룸의 “서식지의 세부 전술”인 셈이다.

「때도는 바위들」에서 한 축을 이루는 콘미 신부의 자선을 위한 여정에서 드러난 것은 가톨릭교회가 영국의 왕권에 대한 충성을 보였던 측면이다. 콘미 신부가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 인물은 버나드 본 신부(Father Bernard Vaughan)이다.

콘미 신부는 걸었다. 걸으면서 버나드 본 신부의 몽롱한 눈과 런던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를 생각하며 웃었다.
—빌라도! 너 저 울부짖는 폭도들을 왜 저지하지 않느냐?
열정적인 사람이자,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지. 자기 방식대로 좋은 일도 했지.
의심의 여지없이. 그가 말했지, 그는 아일랜드를 사랑했고, 아일랜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지? 웨일즈 출신 아니었나? (U 10.33-38)

본 신부는 정치적으로 반동적인 인물로 에드워드 7세의 친구였고, 영국의 왕권에 충성을 맹세한 열정적인 애국자였다. 같은 맥락에서 멜러하이드 거리에서 콘미 신부는 멜러하이드 가문에 대해서도 회상한다.

멜러하이드 거리는 조용했다. 거리와 이름이 콘미 신부를 기쁘게 했다. 기쁜 종소리가 활발한 멜러하이드 거리에서 울리고 있었다. 탈봇 드 멜러하이드 경, 멜러하이드와 이근 해역의 해군 제독의 상속자. 그리고 전투 명령이 내려졌고, 그녀는 하루에 처녀, 아내, 미망인이 되어 버렸지. 그때는 세계적인 시절이었고, 즐거운 마을에서 충성의 시대였고, 귀족의 시절이었지. (U 10.155-61)

쉬류베리 백작인 존 탈봇이 작위를 받게 된 이유가 아일랜드의 일족들을 헨리 5세

와 6세 통치아래 종속시키는 데 무자비하게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조이스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Gibson 85). 이는 아일랜드의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집단이 영국일 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인 앵글로-아이리쉬계 신교도들, 게다가 왕권에 복종하는 아일랜드의 권력층까지 다양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떠도는 바위들」에서 중심축인 총독의 행렬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반응은 그 권위에 비해 미약하다. 특히 팸브루크 군구(郡區)에서 인사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1849년 부군과 함께 아일랜드의 수도를 방문했던 여왕께서 뽀모하였다고 전해지는 집의 문 앞에 있는 두 명의 작은 학생들 (U 10.1279-81)

빅토리아 여왕의 방문에 관한 조이스의 평가는 프리에스피의 강연에서 잘 드러난다. 조이스는 이 방문을 회상하면서 여왕의 부군인 앨버트 공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가 아일랜드 땅을 밟는 순간 배추줄기를 과도하게 흔들어 환영했던 짐을 지적한다(CW 164). 또한 1900년의 두 번째 방문에 대한 기술은 총독의 행렬을 연상하게 한다.

군중들을 걸치레의 행렬과 호기심에 가득 찬 눈과 동정심을 가지고 처연한 중심인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차가 지나갈 때 그들은 모호한 시선으로 따라갔다 (CW 165)

여왕의 1900년 방문의 목적은 당시 치르고 있던 보어전쟁에 아일랜드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권의 권위는 피지배자들의 동정의 시선으로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총독의 행렬도 수많은 군중에게는 하나의 퍼레이드에 불과하다. 군중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군중들은 무관심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존 와이스 놀란(John Wyse Nolan)은 “보이지 않는 냉정함”(with unseen coldness)로 바라보고 있고, 윌리엄 3세의 동상을 지날 때는 브린 부인은 남편이 말발굽에 치이지 않을까 잡아끄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군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사이렌」에 등장하는 바의 여급들은 총독 부인과 귀족부인들의 패션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총독의 행렬에서 벗어난 주변적인 인물인 외다리

선원과 매킨토시를 입은 남자이다. 외다리 선원이 어떻게 외다리가 되었는지 언급된 것은 없지만, 그가 부르는 “넬슨의 죽음”(The Death of Nelson)이라는 노래는 영국 해군의 명장이었던 넬슨 제독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로 볼 때, 전쟁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노래는 원래는 존 브라함(John Braham)의 오페라에 등장했던 노래이지만, 『떠도는 바위들』에서는 총독의 행렬과 영국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에 대한 환기를 해주는 요소이다: “For England, home and beauty.” 이 후렴구는 외다리 선원의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하데스』장에서 묘지에 등장했던 매킨토시 입은 남자는 여전히 신비의 인물이다. 많은 비평가들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늘 의미의 경계선을 미끄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통합적 거대담론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주변적 인물만으로 도시 공간의 의미를 포착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유럽문명의 유산을 안고 있는 인물이 바로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이다.

『율리시스』에서는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의 등장과 함께 유럽문화를 통째로 담아내고 있지만, 아일랜드에서 블룸은 분명히 주변인이거나 경계인이다. 유대인 이면서도 민족적 기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몰리와의 결혼을 위해 가톨릭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블룸은 종파적인 측면에서도 모호한 존재이다. 조이스는 블룸을 통해서 유대인의 분산(diaspora)이라는 유럽적 현상을 더블린의 문화지층으로 편입시키고, 그 안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이스가 보여주는 도시미학은 바로 블룸의 배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산적이며, 유동성, 혹은 이동성을 근거로 한다. 블룸이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는 것은 그가 모더니즘의 상징적 존재인 “flâneur”라는 것을 의미한다. 배회는 순환(circulation)이나 회로(circuit)의 환유이며, 하나로 획일화될 수 없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도널드 티얼(Donald F. Theall)의 지적처럼, 더블린은 “복잡한 기술적 구조물”(a complex technological construction, 31)이라는 사실도 조이스는 간과하고 있다. 총독의 행렬이 지나가는 더블린 도시는 마치 전자회로와 같으며, 각 인물은 결합점(nodal point)에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 복잡한 관계에서 정형을 벗어난 인물인 블룸을 통해서 끝없이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의 실현을 이루고 있다. 다른 장에서와는 달리 블룸에게조차도 적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을 뿐이다. 그는 거리의 서점에서 그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책들에 관

심을 보임으로써, 총독의 행렬의 영향력 밖에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고착화도 거부하는 “방랑하는 유대인”(the Wandering Jew)인 블룸은 특히 주얼 데이빗 로(Jules David Law)가 지적하듯, 『올리시스』의 가장 큰 주제중의 하나인 “일상적인 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변형함”(196)을 형상화한 인물이다. 앞서 언급했던 전략과는 오히려 반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성 속에 배어 있는 거대담론의 작용과 효과를 파악하려는 관점이었다면 역으로 일상성이 역사성을 띠게 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은 이러한 일상성이 중심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블룸이 관여하는 광고일은 더욱 중요하다. 더블린 시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상업문화의 표상들은 조이스의 도시미학이 탈중심적이며, 유목민적인 사고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룸은 아일랜드 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체험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유럽문화의 전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더블린 사람들이 아더 그리피스(Arthur Griffith)의 『헝가리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Hungary*)에서 논한 이중군주제 안이 블룸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문을 통해서 아일랜드 독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파넬의 몰락과 관련된 분쟁 속에서 그의 모자를 주워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도 일상성과 역사성의 접점에 블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1904년 6월 16일이라는 일상성 속에서 압축된 형태로 전개되는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의 문화와 역사는 모더니즘이 더 이상 탈역사적인 담론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이라는 인물과의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을 박해했던 전 유럽적인 반유대주의의 편견에서 더블린이라는 도시도 자유롭지 못함을 조이스는 지적한다. 모더니즘의 도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는 장소로서, 동시에 일상성과 역사성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인 상업문화의 등장도 블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준다. 신문과 광고의 성장은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며, 소비문화로 경제적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도 모더니즘”(High Modernism)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모더니즘은 소비를 중요한 활동으로 삼은 도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결코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자본주의와는 다르다. 경제적 관점에서 더블린의 구성은 식민지 상황을 잘 반영한다. 「자매」(*Two Sisters*)에서 플린 신부의 고향인 아이리쉬타운(Irishtown)은 리퍼 강 부두 근처의 가난한 노동계층의 가톨릭교도들이 사는 빈민가였다(Black 19). 또한 「경기가 끝

난 후」에서 지미의 아버지가 푸줏간을 운영했던 곳이나 「두 한량들」(“Two Gallants”)에서 하녀가 일하던 집이 킹스타운(Kingstown)에 있었는데, 이곳은 부유한 신교도 상류층이 사는 동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빈부의 격차가 식민지 통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더블린은 역사적 변환기에 위치한 “사랑스럽고 더러운 더블린”으로 표현된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더블린도 현대 도시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광고 방식들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총독의 행렬을 바라보는 마리 켄달(Marie Kendall)의 모습은 상업문화 속에서 여성성의 상품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귀족 남성들에게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성적 유희이며, 욕망의 회로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IV

지금까지 살펴 본 공간의 개념은 대부분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시 공간이었다. 하지만 마이클 베그널(Michael Begnal)이 요약하듯이, 조이스의 다른 관심은 내면적인 공간이다:

조이스에게는 한편으로는 공간은 도시 공간을 의미하고, 조이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은 근접한 상황에서의 현대 생활의 분주함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이스는 마음의 공간에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외면-내면 사이의 긴장이 그의 작품의 형성에 결정적이다. (xv)

도시 공간이 확대되는 반면에 한 개인의 공간은 축소되고 오히려 내면의 공간이 확대되었음을 조이스는 블룸의 “내적 독백”라는 기법으로 보여준다. 이 기법으로 거대담론을 비판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내면세계의 확장이라는 모더니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면의 세계도 질서화 되어 있기 보다는 마치 회로처럼 관계가 얽혀 있는 모습으로 조이스가 선택한 예술가의 표상인 다이달로스(Daedalus)의 미로의 현대판이기도 하다. 미로같은 더블린의 거리를 지나는 두 행렬은 「하테스」장에서는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하고, 「떠도는 바위들」에서는 개별화되어 하나의 권위 아래 통합될 수 없는 현대성을 드러낸다.

「떠도는 바위들」에 대한 비평적 수용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더블린 삶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경우와 복잡한 역동성과 끊임없는 변화의 이중성으로 파악하는 경우다(Fogarty 59). 결론적으로 「하데스」장이 죽음의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다면, 「떠도는 바위들」에서는 다양한 더블린의 군상들을 통해서 통합될 수 없는 현대의 다양성을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리 레오나드(Garry Leonard)가 지적하듯이, 현대성은 “단선적인 미학”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들 드러내는 미학이며, 조이스의 공간에 대한 미학이기도 하다(39).

도시 공간을 배회하면서 수많은 의미들과 담론들을 접하면서 불륨의 의식은 “지정학적인 거대 전략”의 틈을 따라서 자신만의 “서식지의 세부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지배조차도 단일한 억압적 체계라고만 볼 수 없고, 관계를 “생산”하는 체계라는 것을 조이스는 포착하고 있다. 비록 영국의 식민지 지배가 아일랜드의 억압적 상황과 그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좌절감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 문화의 일부로서 더블린은 이미 세계화의 과정에 편입되어 있음도 포착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의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거대도시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더블린은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블린의 중심가인 오코넬 거리의 중심을 차지했던 벨슨 동상의 자리에는 현재 첨탑(the Spire)라는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다. 새로운 세기를 기약하는 현대적인 이 탑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했던 조형물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독립과 번영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벨슨 동상이 있던 자리라는 인식은 남아 있다.

(서울산업대)

인용문헌

- Begnal, Michael. "Introduction." *Joyce and the City: The Significance of Place*. Ed. Michael Begnal.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2. xv-xx.
- Black, Martha Fodaski. "Joyce on Location: Place Names in Joyce's Fiction." *Joyce and the City: The Significance of Place*. Ed. Michael Begnal.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2. 18-34.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and Other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Cheng, Vincent J. "'Terrible Queer Creatures': Joyce, Cosmopolitanism, and the Inauthentic Irishman." *James Joyce and the Fabrication of an Irish Identity*. Ed. Michael Patrick Gillespie. Amsterdam: Rodopi, 2001. 11-38.
- Deane, Seamus. "Joyce the Irish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Ed. Derek Attri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1-53.
- Duffy, Enda. "Disappearing Dublin: *Ulysses*, Postcoloniality, and the Politics of Space." *Semicolonial Joyce*. Eds.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7-57.
- _____. *The Subaltern Ulyss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 Ehrlich, Heyward. "James Joyce's Four-Gated City of Modernism." *Joyce and the City: The Significance of Place*. Ed. Michael Begnal.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2. 3-17.
- Fogarty, Anne. "States of Memory: Reading History in 'Wandering Rocks.'" *Twenty-First Joyce*. Eds. Ellen Carol Jones and Morris Beja.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2004. 56-81.
-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Ed. Colin Gordon. London: The Harvester Press, 1980.
- Gibson, Andrew. *Joyce's Revenge: History, Politics, and Aesthetics in Ulys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Law, Jules David. "Simulation, Pluralism, and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 Coping with Joyce: Essays from the Copenhagen Symposium*. Eds. Morris Beja and Shari Benstock. Columbia: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195-205.
- Leonard, Garry. "Holding on to the Here and the Now: Juxtaposition and Identity in Modernity and in Joyce." *James Joyce and the Fabrication of an Irish Identity*. Ed. Michael Patrick Gillespie. Amsterdam: Rodopi, 2001. 39-51.
- Spoo, Robert. "'Nestor' and the Nightmare: The Presence of the Great War in *Ulysses*." *Joyce and the Subject of History*. Eds. Mark A. Wollaeger, Victor Luftig, and Robert Spoo.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105-24.
- Spur, David. *Joyce and the Scene of Modernity*.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2.
- Theall, Donald F. *James Joyce's Techno-Poe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 Valente, Joseph. "James Joyce and the Cosmopolitan Sublime." *Joyce and the Subject of History*. Eds. Mark A. Wollaeger, Victor Luftig, and Robert Spoo.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59-80.

AbstractJoyce's Urban Aesthetics in *Ulysses*

Ki-Heon Nam

It is difficult to define in a word or through one writer what modernism is. But it is absurd to exclude James Joyce in discussing modernism, because his work occupies a remarkable position in the topography of modernism. It would be more deductive to understand what modernism is through Joyce. Modernism is usually defined as being based on the modern life in a cosmopolitan city. The shift of weight from the country life to the urban one is not simply the change of places, but rather the displacement of aesthetic focus.

Joyce's lifelong concern is only about Dublin, even when Joyce lived in European cities, exiled from the Irish capital. His remark on the restoration of Dublin from his own work reveals how deep compassion Joyce must have had for the city. Dublin was the second largest city in the British empire, but rather a city under colonial surveillance and control. Joyce's *Ulysses*, based on the colonial Dublin, inevitably complicates the topography of modernism in that Joyce is the proto-writer of modernism.

The urban space is the locus of new literary movements at the turn of the century. Many writers and artists gathered to form different artistic movements and ideologies. Michel Foucault's definition of a history of spaces as the history of powers from the great strategies of geo-politics to the little tactics of the habitat is relevant in discussing Joyce's *Ulysses*. Joyce's Dublin reveals "the great strategies of geo-politics," e.g. Ireland under the British imperial domination, and "the little tactics of the habitat," that is, the modern life of Dubliners.

Joyce's picture of Dublin in *Ulysses* encapsulates the paradoxical significance of urban aesthetics in that a city life cannot be understood as a whole totality,

because too many people live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In this respect, Joyce's urban aesthetics is based on nomadic life, not on residential one.

■ **Key words** : James Joyce, urban space, Foucault, modernism, Irish literature

(제임스 조이스, 도시 공간, 푸코, 모더니즘, 아일랜드 문학)

논문 접수: 2007년 11월 18일

논문 심사: 2007년 11월 22일

게재 확정: 2007년 12월 10일